

## 平生學習 시대의 大學 機能

金 信 一

(서울大 敎育學科)

### 1. 現實과 時代的 要求

우리의 대학은 大衆化가 빚어놓은 새로운 現實에 적응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力不足으로 사태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날로 惡化一路에 있다. 게다가 時代的 變遷으로 機能의 變化를 요구받고 있으나, 여기에도 적절히 대처할 力量이 부족하여 大學들은 理念不在와 機能不明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은 財政을 충당하기 위하여 定員을 증가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지만, 이제는 엄청나게 늘어난 학생을 수용할 시설과 가르칠 교수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의 高等敎育은 분명한 철학이 없이 개인들의 손에 맡겨진 채로 10여년간 학생 수만 늘었다. 자연히 부실 대학이 늘고 대학은 있으나, 대학교육은 실종된 상태였다. '60년대에 이렇듯 무질서한 대학교육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른바 '大學整備'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학생 수의 증가만 다소 억제하였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서는 급속한 經濟成長에 필요한 人力供給을 목적으로 대학생 수를 매년 큰 폭으로 늘렸다. 이러한 추세는 '8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학생 수의 증가는 人力供給의 목적에서만 아니라, 달리 財源이 없는 대학의 財政調達을 위하여 필요하였다. 즉, 受益者 負

擔의 原則에 의하여 학습자가 대학교육비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제도 하에서는, 그리고 역사가 짧아 自體의 財源이 극히 薄弱한 우리 대학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財源이 學生들의 授業料이므로 학생의 머리 수는 곧 돈이다. 그러므로 모든 대학, 특히 私立大學들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學生定員을 확보하는 데에 필사적이었다.

그 결과로 지난 1970년 이후 20년간 대학생 수가 무려 8배로 팽창하였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를 증원하고 시설을 증설하였으나, 교수의 증원은 4배에 그치고 시설 증설 속도도 학생 수의 증가에는 따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대학들은 현재 엄청나게 늘어난 학생들 치다꺼리에도 역부족인 상태이다.

더우기 교육 재정의 充當을 위하여 정원을 늘렸으나, 최근에 登錄金 抵抗이라는 전혀 새로운 사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대학은 進退維谷에 빠져버렸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抵抗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므로 대학의 財政難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政府의 대학에 대한 財政補助가 한 가지 活路이기는 하지만, 初·中等學校의 財政所要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대학이 이와 같이 정말 어려운 困境에

처해 있으므로 본래의 顧客인 학생들을 수용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을 가외로 수행하기는 힘들다. 세계적으로 오늘날의 대학들은 繼續教育 機能을 새롭게 요청받아 成人들을 위한 長·短期課程, 學位·非學位課程을 실시하고 있다. 英國은 이미 19세기부터 校外教育(extramural program)을 시작하여 모든 대학이 지역 사회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美國은 2차 대전 이후부터 지역 사회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70년대 이후로는 거의 모든 대학이 大學擴張(university extension) 또는 繼續教育(continuing education)의 이름으로 正規學生 이외의 成人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의 이와 같은 社會教育 參與는 세계적 추세가 되어 있다. 더우기 平生教育 理念이 '70년대에 등장하면서 대학의 繼續教育 機能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대학은 정규 학생만을 가르치는 교육 기관이라는 인식은 없어졌다. 청년 학생과 성인 학습자가 교문을 함께 드나들며, 재학생과 10년 전 졸업생이 강의실에서 새로 만나는 일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이처럼 時代的 要求가 변하여 대학이 繼續教育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平生學習 時代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학들은 변화는 커녕 정규 학생을 수용하고 가르치기에도 힘이 벅찬 상태에 있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이 부족하다. 학생이 8배 느는 동안 교수는 4배밖에 늘지 않았으므로 교수가 크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사회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졸업하여 사회에 나간 졸업생들을 다시 불러 들여 재충전을 위한 再教育을 실시할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平生學習 시대의 요구에 대학이 적응하여야 한다는 소리는 높다. 產業構造의 변화, 職業技術과 知識의 변화 週期の 단축, 현대인의 빈번한 地理的·職業的 이동, 餘暇의 증대 등으로 平生學習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그에 따라 많은 社會教育의 場

이 생겨나고 平生學習의 機會가 늘었지만, 대학은 가장 수준 높은 學者와 專門家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기관으로서 많은 경험과 시설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교육 기관과 단체가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수준 높은 專門教育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학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餘力은 부족하면서도 平生教育을 요청하는 社會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으므로 제한된 教育資源이나마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대학이 아니고는 제공할 수 없는 분야의 교육에 치중하고, 다른 교육 기관과 단체들이 능히 제공할 수 있는 분야는 그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빛나간 平生教育

우리나라 대학의 平生教育 機能은 아직도 저조하지만, 몇몇 대학은 일찍부터 平生教育 講座를 시작하였다. 1971년에 대구 啓明大는 '주부 대학 강좌'를 개설하고, 西江大와 高麗大도 이미 '70년대에 勞動指導者課程을 실시한다. 淸州大와 仁荷大도 市民敎養講座를 같은 무렵에 개설한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서 일부 대학이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어 대학 내에 '平生教育院' 등의 이름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다양한 강좌를 실시하게 하고 있다. 연간 受講生 수가 1,000명을 넘는 대학들도 있어서 그 규모도 커졌다.

이와 같이 최근에 들어 대학의 평생교육 사업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그 방향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어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

우선 강좌 내용이 지나치게 敎養講座의 성격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은 그 내용이 다양하면서도 특징이 있어야 한다. 대학이 아니고는 제공하기 어려운 교육,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내용을 가르쳐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이 평범한 교양과정 위주의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某대학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某대학의 평생교육 과정(1988)>

① 傳統文化教育

- 박물관특설반 · 박물관특설연구반
- 전통예술반

② 外國語教育

- 영어반 · 일본어반
- 중국어반 · 독일어반
- 불어반

③ 教養教育

- 건강과 식생활반 · 역사반
- 생활법률반 · 미술감상반
- 여성과 사회반 · 한문반
- 노인의 이해와 심리반
- 정보화사회와 컴퓨터반
- 현대문학반 · 국제정세반
- 생활경제반 · 여성과 테크리에이션반
- 현대인의 노이로제반
- 여성과 의생활반 · 청소년 심리반
- 인생과 철학반 ·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반
- 서양사의 이해반

④ 藝能教育

- 아동미술교육반 · 음악의 이해반
- 생활스포츠반 · 사진반
- 도예반 · 서예반
- 실내디자인반 · 염직반
- 금속공예와 장신구반
- 고전무용반 · 가곡반

이 대학의 평생교육은 박물관에 관한 과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외국어와 교양 강좌는 이미 신문사 문화 센터와 백화점 문화 센터 등을 비롯하여 수 많은 민간 사회교육 단체와 학원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다. 대학이 구태여 일반 사회교육 기관들과 같이 평범한 강좌를 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이 대동소이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그러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다수의 대학이 이와 비슷하다. 대학생들의 정규 강좌를 개방했다고 하는 경우도 대체로 교양 과정의 강좌나 전공 과정의 기초 강좌를, 그것도 성인 수

강생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하여 강의한다. 그러므로 강좌명은 제법 전문적 내용처럼 보여도 실제 강의 내용은 초보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教養講座 중심의 평생교육은 그것이 처음 시작되던 '70년대에는 의미가 있었다. 당시에는 아직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는 교육 기관과 단체가 없었으므로 대학이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양 강좌를 실시하는 것은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오면서 대학 밖의 많은 사회교육 단체들이 그러한 류의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대학은 오히려 다른 분야의 교육을 개발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평생교육에 참여한 대학들까지도 교양 강좌 위주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물론 지역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대학이 아니고는 교양 강좌를 제공할 기관과 단체가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한 특수 경우가 아니라면 교양 강좌는 다른 사회교육 기관과 단체에 맡겨두고 대학은 대학다운 교육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옳다.

평생교육을 개설한 대학들이 교양 강좌에 치중하는 것은 그것이 비교적 용이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受講生の 확보가 용이하고 收入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구성과 강사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受講料로 강사료와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도 黑字가 발생하여 大學財政에 보탬이 된다고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자극하는 중요한 誘因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학들은 施設과 人的 資源 등에 있어서 여유가 없다. 여유가 있기는 커녕 施設不足과 教授不足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분명하게 黑字를 낼 수 있거나, 적어도 自給自足할 수 있는 전망이 뚜렷하지 않으면 대학 당국이 평생교육원의 설립을 허락하지 않는다. 대학 재정에 가외의 부담을 안겨 주는 사업은 용납될 수가 없다. 분명하게 대학 재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 서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용이한 프로그램에 집착하

게 되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다.

敎養講座가 대학의 평생교육으로 不適合하다거나 不必要하다는 뜻은 아니다. 대학이 더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또 대학이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양 강좌에만 치중하는 것은 너무 安易한 選擇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의 대학은 부족한 餘力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인 만큼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분야보다는 반드시 대학이 제공하여야 할 분야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 3. 緊要한 大學의 役割

대학은 專門的 繼續敎育에 치중하여야 한다. 적어도 이 분야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한다. 專門的 繼續敎育이라 함은 대학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여러 해 근무한 뒤에 專門知識의 再充實을 위하여 대학에 다시 돌아와 받는 교육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어느 분야의 專門職이나 대학에서 한번 배운 것으로 평생 동안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끊임없이 그리고 빠른 속도로 새로운 理論과 知識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醫療·經營·工學技術·敎育·行政·法律 등 모든 분야가 부단한 學習을 지속하여야 전문가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 분야의 繼續敎育은 일반 사회교육 기관이 감당할 수 없다. 대학이 아니면 그만한 敎授人力과 實驗·實習施設을 갖춘 곳이 없다.

최근에 大企業들이 專門人力의 自體研修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企業研修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으나, 전문 분야의 계속교육은 역시 대학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는 대학이 가장 적절히 공헌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동안 '70년대부터 빠르게 증가한 이른바 專門大學院들은 專門的 繼續敎育의 한 부분이었다. 經營大學院, 産業大學院, 敎育大學院 등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에는 전문적 지식의 학습보다는 學位 取得에 목적을 둔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는 과거에 대학에서 배운 것 이상의 새로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려는 데에 더 큰 목적을 두었으므로 일종의 專門的 繼續敎育으로 볼 수 있다.

專門的 繼續敎育은 여러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첫째는 學位課程 방식, 둘째는 非學位課程 방식이다.

學位課程에 의한 繼續敎育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專門大學院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繼續敎育으로서의 學位課程은 그 대상이 職場人들이고 成人들이므로 그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日間講義보다는 夜間講義로 운영되어야 하고, 全時制(full-time)보다는 時間制(part-time)에 치중하여야 한다. 이미 전문대학원은 거의 모두 야간 강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時間制 登錄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時間制 登錄制度는 대학원뿐만 아니라 學部 과정에도 필요하다. 그동안 이 제도의 필요성이 누누이 주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지 않는 것은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대학에 대한 定員管理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大學 管理政策도 定員에만 매달리는 量 管理方式로부터 履修者와 卒業者의 質的 水準을 지키는 質 管理方式로 전환하여야 한다. 量 管理方式로부터 質 管理方式로 전환한다고 전제하면, 時間制 登錄制度를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副作用을 방지할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의 경우는 時間制 登錄制度를 당장 실시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專門大學院의 경우는 時間制 登錄으로 혜택을 입을 학생이 많고, 대학의 입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융통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바람직스럽다. 여러 專門大學院이 季節學期制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다만 짧은 기간에 全時制의 한 학기 강좌를 모두 소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따르고 형식적 강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季節學期에 時間制를 가미하면 훨씬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전문적 계속교육의 非學位課程은 여러 종류가 가능하다. 短期課程, 開放講座, 委託課程 등이 가장 흔한 경우이다.

短期課程은 하나의 主題를 가지고 數週間 또는 1學期間 계속하는 과정이다. 이제까지 알려진 것으로 서울大와 몇몇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最高政策決定者들을 위한 과정과 企業經營者들을 위한 과정이 있으며, 최근에는 工科大學도 最高技術者課程을 개발하였다. 또 오래 전부터 운영해 온 延世大의 農學開發課程, 西江大의 勞動指導者課程, 高麗大의 勞動問題課程 등이 있다. 보다 최근에는 弘益大의 美術敎育院, 亞洲大의 產業敎育院 등 이미 많은 短期 繼續敎育이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전공 분야에서 이러한 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이 기대된다.

이 短期課程이야말로 대학이 平生敎育時代에 가장 잘 공헌할 수 있는 분야이다. 각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5년을 週期로 대학에 되돌아 와서 再充電함으로써 급속히 발전하는 각 전문 영역의 최신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도록 돕는 課程을 常設해 두는 것은 이제 대학이 피할 수 없는 기능으로 굳어지고 있다. 短期課程은 常設로 운영하지만, 週期的으로 그 내용을 개정하여 항상 最新의 內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시로 現場의 需要를 조사하여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內容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하나의 방편으로 短期課程 運營委員會에 現場人事를 두세 명 포함시키는 것도 좋다.

開放講座는 대학의 學部課程 및 大學院課程의 正規講座를 成人學習者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각 강좌에 소수의 인원만 받아들일 수 있다. 수강자의 필요와 학습 능력에 따라 수강 과목을 잘 선택하여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의 聽講生制度를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래의 聽講生制度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만든 것이지만, 그동안에는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委託課程은 企業體 또는 公共機關의 위탁에 의

하여 운영되는 과정이다. 현재는 이러한 예가 별로 없지만,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러는 外國語訓練을 위해 企業體가 대학의 外國語敎育院에 위탁하는 사례가 있고 특수 전문 기술 훈련을 대학에 위탁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과 수탁하는 대학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운영 주체는 대학이지만, 위탁자의 요구를 반영시킴으로써 現場의 필요에 부합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4. 맺는 말

서두에 지적하였듯이 우리의 대학은 엄청나게 늘어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에도 벅찬 시설과 교수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교수를 증원하겠지만, 가까운 장래까지는 대학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어려울 것이므로 平生敎育 機能까지 새로 담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를 대학이 전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다. 이미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일부 대학은 전문적 계속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敎養課程 중심의 平生敎育으로부터는 탈피하여야 한다. 대학이 마땅히 공헌하여야 할 전문적 교육을 모두 실시하고도 여력이 있으면 교양 강좌를 운영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대학 본래의 전문교육 기능을 뒤로 미루고 운영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평범한 교양 강좌에 치중하는 것은 대학다운 사업이 아니다. 대학은 일반 사회교육 기관이 할 수 없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양 강좌를 위한 수강생을 놓고 일반 사회교육 기관들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결코 자랑스럽지 못하다. 대학에 맡겨진 平生敎育 機能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